

아동센터 아이들 뮤지컬 주인공 되다

광주 '사직·성빈·꿈터' 40여명 13일 '사운드 오브 뮤직' 공연

사직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김예지(백운초 4년) 양은 지난 두달 동안 뮤지컬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셋째 딸 '루이자'역을 맡은 예지양은 일주일 에 세차례씩 연습을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새로운 노래와 춤을 배우는 게 마냥 신났다.

"연기는 자신 있는데 율동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혼자 많이 연습하고 그랬죠. 제가 부르는 노래는 '도레미 송'과 '안녕, 여러분' 이에요. 무대에 설 생각을 하니깐 조금 떨리기도 한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직·성빈·꿈터 등 광주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40여명의 아이들이 뮤지컬 배우로 변신했다. '수상한 교육문화 공동체-결'과 함께 진행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을 무대에 올린다. 13일 오후 4시 빛고을극장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2008 꿈꾸는 샵 & 플랫 음악축제'를 통해서다.

'꿈꾸는 샵 & 플랫'은 '반음'을 뜻하는 음악 용어 '샵'과 '플랫'처럼 음악을 하는 예술가들이 시선을 '반음' 내려 아이들, 특히 교육과 문화로부터 소외된 아이들과 '음악적 관계 맺음'을 통해 배움과 성장의 멋진 양상을 만들어가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13일 빛고을극장전수관에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을 공연하는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이 광주시 남구 백운동 동사무소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결'이 처음부터 뮤지컬을 무대에 올릴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니었다. 광주시 남구 백운동 인근에 퍼져 있는 꿈터 등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노래 부르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함께' 모여 '화음'을 만들어가며 합창 연습을

하다보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 등 또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합창 연습'이 시작됐다. 백운동 동사무소 빈 사무실이 연습 공간으로 변모했고 성악가 김사도씨 등이 선생님이 되어 적극 참여했다. 합창을 하며 조금씩 성취감을 맛본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율동을 넣어 연습하기 시작했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욕심 내다 뮤지컬을 생각해 냈다.

10월 초 대본 리딩을 하고 오디션 을 통해 극에 등장하는 8남매를 결정 했다. 아쉽게도 탈락한 아이들은 합창단 역을 맡아 함께 무대에 등장한다. 출연진들은 일주일 에 3번씩 모여 연습을 진행했다.

이번 뮤지컬은 지역 예술가 등 많은 이들의 문화 나눔이 어우러진 작품이라는 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성인 역할인 마리아는 음악 지도를 하고 있는 김숙영씨가 맡았다. 트라 프 대령 역은 성악가를 꿈꿨지만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나연오씨가 꿈을 내 아이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또 아마추어 연주 자들이지만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무등실내악단이 아무런 대가 없이 뮤지컬 반주를 맡았으며, 독일 장교 등 은 박상준 군 등 고등학생들이 봉사 자로 참여했다.

'결'의 박형주 씨는 "이번 작품은 문화와 좀처럼 접하기 어려웠던 아이들이 뮤지컬이라는 공동 작업을 통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며 "지역 사회 예술가와 어 린들이 함께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점 에서도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음악축제에서는 오카리 나와 아카펠라 연주도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062-432-131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14회 한중서법교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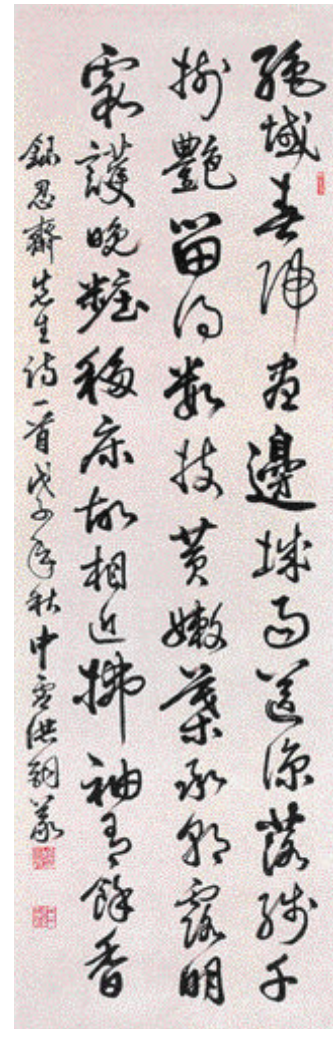
국제서법에술연합한국본부 호남지회(회장 홍동의)가 북경 대학서법연구소와 함께 15~20 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제14회 한중서법교류전'을 갖는다. 국제 서예 발전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서예가들이 양국 을 오가며 전시회를 여는 교류 전이다.

서법에술연합 호남지회
북경대서법연구소 공동
15~20일 비엔날레전시관

이번 전시는 학정 이돈홍 선생 의 문화생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주관하며, 연구회 회원 126명과 중국 북경대학서법에술연구소 김개성 소장 등 중국 서예가 81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전·예·행·초서 등 의 서체와 한글, 문인화, 전각 작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 이들은 지난달 8~11일까지 북경대학도서관에서 동명의 전 시를 열어 호남 지역의 서예를 중국에 알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홍동의의 작 '인재 선생 시'

전국 국악인 해남에 모여 기량 겨룬다

해남에서 전국 국악인들 이 모여 기량을 겨룬다.

해남군은 "전국 규모의 국악경연대회가 13일부터 이틀 간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첫 땅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의 소리'라는 주제로 펼쳐진다"고 11일 밝혔다.

전국국악경연대회

이번 대회는 관소리와 무용, 고백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전국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국악인들이 대거 참가해 치열한 경연의 장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해남 전국국악경연대회는 그동안 수많은 신인 국악인들을 배출해 왔는데, 이번 대회는 국무총리상으로 격상됐다고 군은 전했다. 이번 대회 국무총리상 시상금은 300만 원이다.

/박진표기자 lucky@

창작관현악극 '애가' 무대에

내뱃소리 민속예술단

(사)내뱃소리 민속예술단(대표 신경환)이 창작관현악극 '애가(哀歌)-앞산 진달래 뒷산 무궁화'를 무대에 올린다.

'애가'는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는 전통음악이 관객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무악이 결합된 연극적 공연 형식을 차용한 작품이다.

남도의 대표적 민요인 '육자배기', '흥타령'과 북쪽의 대표적인 서도민요의 만남인 '애가'는 다양한 민요변주를 통해 서민들의 삶 속에서 노래가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떻게 변해 왔는지 노래극 형식으로 보여준다. 신경환씨가 기획을, 김상유씨가 작·편곡을 맡았다. 또 오성환(공연예술촌 연바람 대표)씨와 마미숙씨가 극 연출과 소리 지도를 진행했다. 내뱃소리 단원들과 공연예술촌 연바람 단원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문의 062-261-400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빛고을무등가야금연주단 송년음악회

14일 오후 5시 광주 남구문예회관



지난 1992년 창단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빛고을무등가야금 연주단(단장 심심은·사진) 송년음악회가 오는 14일 오후 5시 광주 남구문예회관에서 열린다.

문예회관 초청으로 무대에 오르 는 연주단은 지금까지 공연했던 레퍼토리 중 관객들의 호응이 좋았던 작품들을 묶어 프로그램을 짜다. 연주 레퍼토리는 국악 창작곡 '흥'을 비롯해 '호남가', '심청가' 중 '방아타령, 김쪽파류 산조합주' 등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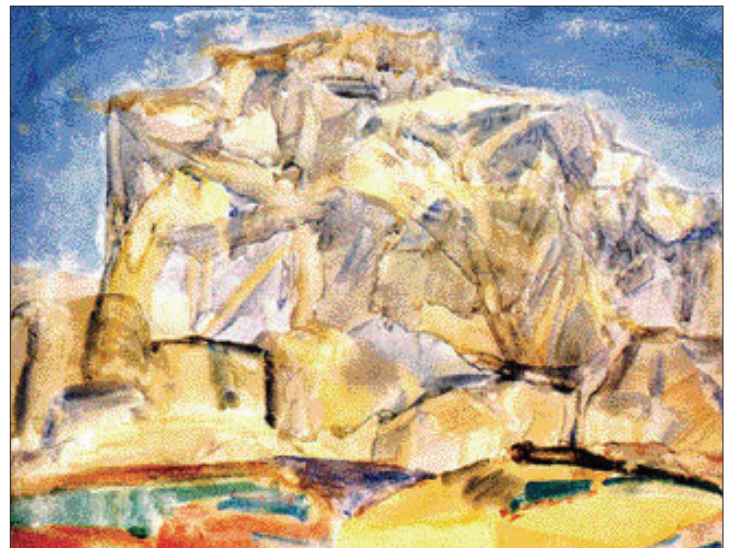
또 25현 가야금 합주로 흥겨운 '울산 아가씨'를 들려주며, '인어공주', '티파니에서 아침을' 등 영화 음악과 크리스마스 캐롤을 선사하는 무대도 마련한다.

서담·김경희·김미진·정선옥·이주현·박주연·윤혜정·황승옥·이지영·장은미씨 등이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화상'



'무등산'

■ 타계한 원로화가 배동신의 작품세계

동양미 추구... 한국 수채화의 거장

지난 10일 타계한 고(故) 배동신 화백은 "그림에 대한 광적인 집념을 가진 한국 수채화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작가이다.

지난 1920년 광주에서 출생한 그는 17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일본 동경으로 건너갔다. 1939년 가와바다화학교에 입학해 대상 등 기본기를 다진 배동신은 이곳에서 한국 근대 회화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문하수, 이종섭 등과 어울리며 예술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

또 1945년 귀국후에는 나주시

금천면의 한 농가에 화실을 마련한 뒤 김보현, 김인규, 허백련, 천경자씨 등이 주축이 된 '황우회'를 결성하며 본격적인 작품활동에 들어갔다. 1968년에는 광주에서 강연군, 김충곤, 박철교, 우재길, 최종섭씨 등 후배들과 함께 국내 첫 수채화 그룹인 '수채화창작가협회'를 결성해 전시회를 열었다.

이후 1970년대 '황토회' 창립 전, 1993년 원로작가 초대전 등에 출품하는 등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다가, 지난 1989년 여수로 옮겨 수채화 작업을 계속해왔

다. 그는 주로 목포항, 정물, 여인상, 누드 등을 즐겨 그렸으며 거칠고 투박스럽게 표현한 무등산 작품 등을 통해 독창적 작품 세계를 선보였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미술평론가 페리 비알리는 지난 1990년 발표한 비평문을 통해 "채색된 필치와 각진 선들이 화폭 전체에 널리 퍼져 안개처럼 표현한 분위기가 인상적이다"고 배동신의 작품을 평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의·치의학/약학

전문대학원 MDPass 의(醫)학원
진학전문교육기관 **진학선명회** 12월 13일(토) 오후 2시~

서울유명학원 전문강사진 전격출강!

일반영어 김정희 강사 연세대학교 석사	일반회계 황세민 강사 연세대학교 석사	유기화학 이윤정 강사 연세대학교 석사
일반생리 박종기 강사 연세대학교 석사	언어특론 김종민 강사 연세대학교 석사	일반 TEPS 서정희 강사 연세대학교 석사

3주 동안 실시한 예비 대학원 대입시험 준비반은...
1월 2일 기출문제 (1월 20일) 시험

MDPass 醫학원

광주 263-5453 북구청 맞은편 | 서울 255-9119 전북대 병원 앞

서울고시학원

www.kgsol.com 514-4560